

## 1. 본회, 「2007 전자전」 설명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IT 전시회인 한국전자전이 오는 10월 9일 개막한다.

본회는 3월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외 50여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한국전자전(KES 2007)을 오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등 국내 대표기업과 소니, JVC, 샤프전자, HP, 하이얼, 벤큐 등 한국·일본·미국·중국·대만의 주요 기업 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회는 올해 전자전은 'Home to New Digital Life'라는 주제 아래 해외기업 220개사를 포함한 650개사가 총 1500부스로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IT기업 CEO를 초청한 '키노트 스피치', 국제세미나, 신제품 발표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리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참가한 하이얼 등 중국계 기업들이 올해에는 100여개사가 참가할 예정이어서 국제 규모의 전시회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는 또 오는 10월 일본과 대만, 홍콩 등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전자전시회 일정과 맞춰 전시회를 통한 아시아 수출 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늘기 시작한 해외 기업의 참여가 올해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시회를 통한 수출상담 및 계약 목표도 25억 달러와 2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말했다.

## 2. 본회, 대만서 「한국전자전」 홍보 로드쇼

본회는 지난 4월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올 10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07 한국전자전' 홍보를 위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에는 대만의 주요 전자기업 50여개사 참석했고, 현지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전자전 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주대만 한국대표부 강명수 상무관이 주제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지난해 한국전자전에 대만 33개사가 참여했고, 올해에는 50여개사가 전시회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드쇼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중국 심천에서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해외 마케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3. 본회, BIT 산업 협의회' 출범

본회는 3월 29일 BIT 융합기술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BIT 산업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BIT융합기술이란 바이오 생명공학(BT)을 기반으로 정보기술(IT) 전자 등이 융합된 기술로 21세기 U-헬스 산업 시대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개최해 초대 회장에 박한오 바이오니아(4,505원 110+2.5%) 대표를, 부회장에 문우철 굿젠 대표를 선임했다. 감사에는 김인철 LG생명과학 대표가 선임됐다.

협의회에는 바이오칩, 바이오센서, 진단 분석기기, 바이오인포매틱스 등의 분야에서 23개 기업이 참여해 BIT 기업들간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키로 했다.

BT와 IT 융합기술에 대한 정부 조직이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IT산업 제품 분류 체계가



없고, 신제품 시장 동향 등 정보가 부재하는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협의회 회원 23개사는 굿젠 나노스토리지 나노엔텍 디지털지노믹스 래피젠 레플진 마크로젠 모메드 바이오니아 바이오메트릭스TECH 바이오트론 바이오포커스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스몰소프트 스타브이레이 엔솔테크 케이맥 코젠바이오텍 프로테오젠 플라토 HBI KMH LG생명과학 등 이다.

### 4. 본회 상급단체화 논의 본격화

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칭) 설립과 본회의 상급단체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회·반도체산업협회·디스플레이연구조합·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 상근 임원들과 산업자원부 담당팀장은 3월 22일 서울 역삼동 전자회관에서 '전자업계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회동을 갖고, 이르면 이달 말 '전자산업진흥회와 품목별 단체 간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실무 TF를 구성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협회 임원 간 회의에서 오는 7월 목표인 디스플레이협회 설립과 전자회관 개관 이전에 전자산업진흥회의 상급기관화를 마무리짓는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역할 분장은 실무

TF에서 논의한 후 최고결정권자들에게 결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실무 TF는 전자산업진흥회가 주관하게 되며, 전시회 통합·환경 사업·특허·통계·R&D사업 등 현재 전자산업진흥회와 품목별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망라해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역할 분장의 기준조차 모호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기 보다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며 "협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추진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5. 2007 한국전자전 기간에 방송통신융합전 동시개최

통신과 방송 분야의 융합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송통신융합전(ComBCon) 2007' 행사가 오는 10월 9일 경기도 일산 KINTEX(킨텍스)에서 개막된다.

한국전자전(KES) 주관사인 본회와 ComBCon 주관사인 경향신문은 지난 4월 6일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10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38회 KES 2007과 제4회 ComBCon을 동시 개최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오는 10월에는 한국전자전 기간에 맞춰 방송통신융합전이 동시에 열리게 된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전시회의 공동 홍보 및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정보통신 업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6.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세미나

본회 특허지원센터에서는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한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이해와 대응방안을 제시코자 미국 전문변호사를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3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에 걸쳐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세미나 주요내용

- 제1세션 :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손해 배상액 산정개요 (충남대법대 정차호 교수)
- 제2세션 : 원고로서의 손해액입증 (Daniel Johnson)
- 제3세션 : 피고로서의 손해액 반박 (Steven Daniels)
- 제2세션 및 제3세션 강평 (Radar 판사)
- 제4세션 : 원고소서의 합당한 실시료 입증 (Peter Kang)
- 제5세션 : 피고소서의 합당한 실시료 입증 (Darryl Adams)
- 제4세션 및 제5세션 강평 및 질의/응답 (Radar 판사)

### 7. 전자산업 분야 베트남·태국 통상촉진단 파견

본회는 경기도의 「07년도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을 받아 베트남, 태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호치민과

방콕에서 교역상담, 기술협력, 투자제휴 등 무역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가. 파견기간 : 2007년 7월 중순, 5박6일
- 나. 파견도시 : 호치민(베트남), 방콕(태국)
- 다. 지원내용
  - 정부지원 :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현지 시장 조사 및 바이어 섭외비, 현지 통역 (업체당 1

- 인) 등 행사 제반 경비
- 업체부담 : 항공료, 숙박 등 체제비
- 라. 접수 및 문의처 : 본회 산업총괄팀 이상욱 과장
- 전화 : 02-553-0941(내선 232)
- 팩스 : 02-508-4199